



재한 팔레스타인인  
인터뷰 2면

이재명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비판 5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역봉쇄  
3면

이란 전쟁 휴전과  
미국 제국주의  
권력의 균열  
6~7면

레바논  
전황  
4면

헝가리 극우 총리  
오르반 빅토르  
몰락  
10면

CU 배송 노동자  
파업 11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12면

대구시장  
선거  
9면



# 이스라엘은 전범 국가다

##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 중단하라

관련 기사 2, 5면

###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역봉쇄 철회하라

관련 기사 3면



## 재한 팔레스타인인이 전한다

#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 이용해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서안지구 출신의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루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공동간사가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 전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지역에서 자행하는 일을 숨기려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전략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했듯이 [이란과 레바논에] 끔찍한 폭격을 가하고 인종학살과 다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조차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 정착촌을 건설하고 영토를 계속 강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최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끔찍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무장 저항뿐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 이런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인질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적인 죄수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데, 단 한 차례의 공정한 재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수감자들을 ‘인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물자 트럭은 매우 적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극도로 심각합니다. 오늘날 가자 인구에서 절반가량이



가자지구 ‘휴전’ 반 년이 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량반입을 옥죄고 있다. 4월 11일 칸유니스

18세 이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게다가 이들은 2년 동안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 ‘휴전’이 타결됐을 때, 저는 “0보다 많지도, 0보다 적게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 힘을 갖고 이룬 것이 아닌 이상 휴전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 프로파간다

이스라엘은 또한 가자지구 내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자지구에서 친이스라엘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여기에 가담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매우 적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과 무기를 지원받고, 구호품을 훔칩니다. 이런 자들과 하마스 등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이 충돌하면 PLO 등은 국제법을 운운하며 ‘둘 다 잘못했다’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이스라엘은 이런 충돌을 이용해서 서방에서 실추된 자신의 프로파간다를 복구하려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폭력적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더 넓은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지지를 꺾으려 합니다. 저는 시리아의 [옛 지배자] 아사드는 나쁜 사람이었고 그가 팔레스타

인 대의를 지지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 [현 시리아 지배자] 졸라니가 이스라엘에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비교해 훨씬 나쁩니다. 졸라니는 ‘뭐든 다 해 줄 테니 제발 시리아에 대한 공격만은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시리아나 걸프국 정부들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내러티브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점령 국가’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그냥 ‘국가’라고 부르거나 ‘팔레스타인 민족’을 터는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말합니다.

또, 각국이 마치 그동안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가 서방에서는 무너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동에서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또 다른 팔레스타인인 친구와 함께 <한겨레21>과 인터뷰하며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 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악플이 많이 달려서 거의 울 뻔했

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 친구가 제게 뉴스를 보여 줬는데, 수백 개의 댓글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이 올린 트윗이 중동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트윗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선거에서 이스라엘 로비 단체나 시온주의 단체의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자지구가 70퍼센트 파괴되고 1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대가로 이런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 누구 못지 않게 헌신적으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물론 이 여정이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라고, 이미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변화를 이뤄 냈고, 저는 현실도 바뀌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들으려 하고, 또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종환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루미

# 호르무즈해협 역봉쇄로 전쟁 재개 위협하는 트럼프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13일 오전 10시(미 동부 시간)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5척 이상의 군함을 현지에 배치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다. 21일로 예정된 휴전 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이란 전쟁은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21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단 한 차례의 협상만 한 뒤 미국의 철수로 끝났다. 밴스는 핵 프로그램 영구 종료 요구를 ‘받든 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이란 측을 압박했고,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자신이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을 두고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초”라고 말해 놓고는 뒤집은 것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세워 (이란의 핵심적인 안보 문제를 보장하지 않고) 해상 운송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일시 휴전을 얻어 내려고 했던 듯하다. 세계 석유 공급 압박을 완화하려고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통해 달성하지 못한 것을 협상을 통해 관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타결 가능성이 낮은 협상이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계산이다. 트럼프는 이란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그럴 경우 중국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무력으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깨지 못할 것이며, 미국이 단기간에 이란을 굴복시켜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미국 항공모함들은 여전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를 주도했던 최첨단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함은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지중해에 있다. 승조원들이 불만의 표시로 티셔츠나 양말을 배수관에 쑤셔 넣어서 세탁실·화장실을 고장 나게 했기 때문이다.



승조원들의 반발과 이란의 포격으로 전선에서 이탈해 지중해에 머물고 있는 미 항모 포드함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의 이란 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 손실로 끝났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려면 미군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의 세 섬(아부 무사, 라라크, 하르그)을 점령해야 한다. 문제는 해병대의 상륙이나 점령이 아니라 주둔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쟁 공습사 전문가인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보급 수령”이라고 부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도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기존 긴장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버티기만 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상 봉쇄가 그 효과를 내려면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린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또, 이란에게는 비장의 카드 후티가 있다. 후티는 무역의 또 다른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 미친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이 패배했고 미국이 승리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은 미국 제국주의의 또 하나의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적인 횡설수설과 광기 섞인 위협은, 이란을 폭격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중동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국가 하나를 장악하려 했던 야만적인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1조 달러에 이르는 전쟁 예산, 항공모함, 5,000개의 핵탄두로도 자국보다 훨씬 더 약한 국가들로부터 존경이나 복종을 끌어내지 못해, 그 지도자가 상대를 겁주어 굴복시키기 위해 미친 척해야 할 정도로(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미친놈 이론”이라고 부른) 미국 제국주의의 힘은 취약해졌다.

미국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퍼붓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트럼프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가톨릭 유권자

의 53퍼센트가 지지해 준 덕분에 당선됐다. 현대판 아비뇽 유수에 처할 세속 권력은 없지만, 교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말과 광기는 제국주의 강대국이 세계를 통제할 능력을 잃어 가는 과정이 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하는 힘에 분노하고 있다. 쇠퇴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만회하려고 트럼프는 전쟁 지속으로 대응하려 할지 모른다.

이스라엘도 트럼프의 이번 전쟁 실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트럼프는 너무 큰 압력을 받은 나머지 네타냐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휴전에 들어갔다. 물론 네타냐후는 휴전을 깨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중단이라는 휴전 조건을 거부하며 대량 살상을 자행하고 있다.

레바논 저항 세력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이란 정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란 정권과 헤즈볼라의 연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확장주의적 과업 수행은 만만찮을 것이다.

제국주의의 광기가 세계를 휘감고, 열전이 시스템의 상시적 일부가 된 시대에 전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인식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제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6

# 네타냐후는 레바논의 분열을 부추기지만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4월 8일 이란 전쟁 일시 휴전이 선언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차지하려는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전 선언 당시 레바논 저항 세력 헤즈볼라는 공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확인해 준 대로 휴전이 레바논까지 포함하기로 합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그 합의가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레바논 전역을 폭격했다. 불과 수 분 동안 레바논 전역의 100여 곳에 폭탄이 떨어졌다.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폭격이었다. 레바논 보건 당국에 따르면 그 폭격들로 인해 최소 254명이 죽고 1,165명이 다쳤다.

트럼프도 레바논이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네타냐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공격 규모를 줄이고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이 깨질 우려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은 일단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레바논 남부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이스라엘도 그 안에서 자신의 야심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기사를 쓰는 4월 14일 현재 레바논 남부의 주요 도시 빈트 즈베일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평화 협상'에 반대하는 베이루트의 시위대

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사이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수일 내로 그곳을 장악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만만찮은 반격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주선 하에서 진행될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의 협상은 '평화 협상'으로 포장되지만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즉, 레바논 정부가 총 돌을 각오하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

시키는 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지를 둘러싼 협상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대신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게 해서 헤즈볼라를 고립시키고 레바논 문제가 대이란 전선에서 변수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는 이미 2024년 이스라엘과 '휴전'(실제로는 수위가 관리되는 충돌의 지속을 뜻했다)을 합의한 뒤,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임무를 부여받은 군부가 '내전'을 무릅쓸 수 없다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는 헤즈볼라가 단지 이란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 과정에서 레바논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린 세력이기 때문이다.

## 저항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킨다는 것은 레바논 남부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하려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뜻한다.(레바논군과 유엔군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늘 수수방관해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격은 오히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시킬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레바논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가 본지 지난호에서 전했듯이, 현재 레바논 내에는 레바논 남부 주민들과의 광범한 연대 정서가 종파의 장벽을 가로질러 형성돼 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 폭격 직후인 4월 9~11일 베이루트의 레바논 정부 청사 앞에서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첫날 시위 규모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시위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헤즈볼라 깃발이 두드러진 시위였지만 수니파와 드루즈인의 상징들도 시위에 등장했다. 헤즈볼라에 적대적인 수니파 주류 정당인 '미래 운동'은 시위에 참가한 당원들을 비난하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만큼 기층 수준에서는 종파를 가로지르는 광범한 연대 정서가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저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이번 전쟁을 기회로 헤즈볼라를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는 레바논 내에서 종파 간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방식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좌절시키려는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이원웅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공개 토론회 영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팔레스타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비판,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4월 10일 한 영상을 엑스(옛 트위터)에서 공유한 것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고문 살해한 팔레스타인 아동의 시신을 건물에서 던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다.

웁게도 이재명은 그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국힘 정치인들도 이재명의 비판을 “가짜 뉴스”(장동혁), “국제 갈등에 불을 지피는 ... 외교 참사”(대변인 조용술)이라며 혈혈했다. 우파 언론들도 일제히 사설에서 “평지풍파”(《조선일보》), “불필요한 외교 마찰”(《중앙일보》)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원조 친미’인 이들은 이재명이 미국의 핵심 동맹 이스라엘을 문제 삼는 것을 불편해 하고, 이를 비난함으로써 지지층을 다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희생자의 후손들조차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에 반대한다.(관련 기사: 본지 490호, ‘이스라엘 국가가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대표하는가?’)

게다가 그 영상은 이스라엘군(과 미국)도 사실로 인정한 행위를 촬영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원 게시자는 스스로를 “금지 있는 팔레스타인인”이라 소개하며 이재명의 글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이 영상은 진짜입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일원인 ‘스냅챗’계 정주(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가 촬영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 촬영자는 목격된 것에 대해 세부 사항과 맥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면 모든 세부 사항과 답변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각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외면받지 않고 목소리가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목소리가 묻히지 않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보장



이재명 정부는 전쟁 범죄 비판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받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뤄져야 마땅한 바람이다.

그 팔레스타인인은 이재명의 게시글이 “저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며 크게 반겼다.

## 행동

그럼에도 이재명의 이런 비판은 한참 뒤늦은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전쟁이 9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2025년 2월에 민주당 대표로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덕담을 나눌 때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중동 동맹국들에게 무기 ‘세일즈 외교’를 할 때도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으

로 죽고 있었다.

이재명이 지난해 10월 이집트를 방문해서 만난 독재자 엘시시는 가자지구와 접해 있는 라파흐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의 봉쇄를 거드는 공범이다.

이제라도 이재명은 “인간의 존엄성 [은] ...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는 자신의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외교부)이라고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말이다.

지난 2년 사이 인종학살을 규탄하며 이스라엘과 단교한 국가가 여럿 있다. 국제 BDS 운동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국가·기관들도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스라엘의 인종학

살 지속에 일조하는 대이스라엘 협력과 무기 수출 등을 중단해야 한다.

또,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재명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처들도 있다. 예컨대 2년 넘게 거리에서 이스라엘 인종학살을 규탄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도심 행진 제약을 당장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관련 기사: 본지 567호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구간 허리 끊기 한 경찰: 이재명 정부의 친미·친이스라엘 정책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또, 가자지구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가자로 향한 천 개의 매들린 호(TMTG)’ 선단에 참여하려 출국한 해초(본명 김아현) 활동가의 여권을 외교부가 무효화시킨 것도 되돌릴 수도 있다.

사실 이재명이 이 글을 올린 시점은,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둘러싼 이란과의 협상을 앞둔 때였다. 이재명이 그 글을 올리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외교부는 이란과 협상을 진행할 특사를 지명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가늠하고 이란 전쟁으로 중동을 어지럽힌 당사자인 미국에 대한 비판은 애써 피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SNS 설전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한 외교적 리셋대”(《한국일보》)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마치 박정희가 1973년 세계적 유가 파동 이후 이스라엘에게 “1967년 [전쟁]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아랍 성명’을 발표해 걸프 산유국들의 비위를 맞춘 것처럼 말이다.

김준호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뽀뽀하고 오만방자한 박상용
- ★ 미국 권력층 내홍 속에 메이데이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 이란 전쟁 휴전과 미국 제국주의 권력의 균열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2026년 4월 트럼프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는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10개 항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트럼프는 이를 “협상의 실행 가능한 기반”으로 인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타협으로 보이는 이 장면은 실상 미국 제국주의 권력의 근본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번 휴전은 미국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더 위험한 군사적 모험으로 치닫는 경향 또한 보여 줬다

## 전쟁의 전개에서 드러난 딜레마

### 군사적 우위의 한계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에는 이란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파르푸르를 포함한 40명 이상의 고위 군사 및 국가 관료들이 사망했고, 이란 공군은 무력화됐으며 해군 전력의 상당수가 침몰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초도화”하고 “말살”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란인들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발 폭격을 계속해 주기를” 원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커다란 군사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란 정권은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내 미

군 기지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반격을 감행했다. 특히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 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전선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됐다. 이는 압도적 군사력만으로는 지역 강국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 하르그 섬의 중요성과 중국 변수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하르그 섬 문제였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북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이란 석유의 약 90퍼센트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연안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 접

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사실상 유일한 관문 구실을 해 왔다.

미국은 그동안 하르그 섬 공격을 의도적으로 자제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경우 이란이 ‘실패한 국가’로 전락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난제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둘째, 이란 석유의 90퍼센트를 수입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산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와중에도 중국으로 향하는 일부 석유와 가스의 통행은 허용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가 더는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상황이다. 중국이라는 진정한 제국주의 경쟁자의 존재가 미국의 군사 행동에 전술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2000년대까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의 위상이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반영한다.

### 국내 정치의 제약과 지역 내 동맹들과의 관계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유

가가 폭등했고 이는 트럼프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들과 대기업 후원자들은 세계적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원치 않았다. 더욱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 분명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퍼센트가 이란 내 지상군 투입을 강력히 반대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압박 요인이었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처지도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 미군 기지를 보유한 걸프 지역 정권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자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받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과거 2019년 아람코 시설 공격 당시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기억 때문에, ‘미군 기지를 내주고 이란의 공격을 받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미국의 보호가 확실한가?’라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란이 민간 항구와 가스 전까지 공격하며 ‘에너지 전쟁’을 선포하자, ‘미국이 우리 시설을 완벽하게 방어해 주거나, 아니면 이란이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끝장내 달라’는 식의 더 강력한 보장을 요구하는 전략적 밀당으로 돌아섰다.

이는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를 외면한 채 일방으로 전쟁을 확대할 수 없음을 뜻한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으로도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다

사진 출처: 미중부시평부



### 이스라엘의 전략적 자율성 증대

## 휴전 협상이 드러낸 변화하는 세력 균형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드러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이렇게 토론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번 작전의 시기와 목표를 결정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의 “정권 교체”에 혈안이 돼 있었고, 미국이 추진하던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의도적으로 좌절시키기 위해 전쟁을 확대하려 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에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미국의 동이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감행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적 군사 능력은 여전히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그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감시견’(watchdog)인 채로 남아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랫동안 키워준 군사·산업 기반 위에서, 또 그 범위 안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 전쟁을 주도하거나 미국을 확전에 끌어들이는 ‘경비견’(guard dog)의 능력까지 키워 왔다. 한계를 완전히 돌파했다기보다는 기존 한계 안에서 자율성과 공격성이 크게 증대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전략적 자율성 증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내 전초기지 구실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전초기지가 점점 더 상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휴전과 출구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점령과 이란 정권 교체라는 자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와 그 지역 ‘아류’(하위, sub-)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제국주의 국가의 힘이 약화될 때 ‘아류’의 독자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 이란의 공세적 요구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한 10개 항의 제안서는 단순한 정전 협정을 넘어서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거기에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이란 동맹국들에 대한 모든 전투 중단, 모든 제재 해제, 그리고 “지역 내 모든 기지와 배치 지점으로부터의 미국 전투 부대 철수”라는 ‘공세적’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

놀랍게도 트럼프는 이 제안을 “협상의 실행 가능한 기반”으로 수용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군사적·정치적 지렛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사적 열세를 협상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 파키스탄의 중재자 역할 부상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요소는 파키스탄의 중재자 역할이다.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는 “양측 모두 놀라운 지혜와 이해심을 보여 주

었으며,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슬라마바드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외교적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중동 분쟁의 중재자 역할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또는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 강국들이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남아시아 국가가 중재자로 등장함으로써 지역 질서의 다극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양한 지역 행위자들의 외교적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 쇠퇴하는 제국의 위험성

그러나 이번 전쟁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이는 제국주의 권력의 쇠퇴가 반드시 평화로 귀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위험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전쟁 기간 내내 극단적 수사와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전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 브라이언 피누케인이 지

적했듯이, “문명 전체”에 대한 위협은 “제노사이드 위협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었다.

이번 휴전이 미국의 약점을 드러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거니와, 전쟁에 내재된 확전의 논리를 멈추지도 못한다.

첫째,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 중에도 레바논과 여타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 중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다.

둘째, 이란도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도 정권이 유지되고 군사적 저항 능력을 보존한 상황에서 이란의 협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수천 명의 미군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상 작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그의 심층적 동기가 정권 교체와 에너지 자원 장악에 있음을 시사한다.

## 제국의 황혼, 저항의 지속

2026년 4월의 이란 전쟁 휴전은 미국 제국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지역 강국을 굴복시키려던 시도가 좌절되고, 오히려 경제적·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와 동맹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맞서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 쇠퇴의 징후들이 자동으로 평화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쇠퇴하는 제국은 종종 더 위험한 군사적 모험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옥을 맛보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 패권의 종말이 시작됐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더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처럼 큰 제약 없이 지역 질서를 재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 지역 강국들의 저항 능력 증대, 동맹국들의 이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국내의 정치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며 미국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휴전은 일시적 숨 고르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낸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저항의 가능성은 향후 중동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아직은 건재하지만, 그 기반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가고 있음을 이번 전쟁은 여실히 보여 줬다.

###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보기**

일시 4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 통역사의 영어-아랍어-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총각역 5번 출구도보 5분)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 저자

참가비 6,000원(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 주한미군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재선거 극우는 황교안 지원, 민주당·조국당은 김재연 견제

김문성

올해 6·3 지방선거 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가 주목할 만하다.

좌파 정당으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 두 달 동안 지역을 일구고 있다. 이 선거구에는 극우 황교안(자유와혁신)도 출마했고, 전한길 등 극우가 그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군 기지와 신설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로 최근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됐다. 이 선거구가 주목받는 이유다. 그전까지 평택은 대체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평택시민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재연 후보가 선두권에 올랐다. 오세호(민주당, 13.1퍼센트), 김재연(12.5퍼센트), 황교안(11.7퍼센트), 유의동(국민의힘, 10.7퍼센트) 순이다.

아직은 고루 분산된 오차 범위 내 선두권이지만, 그럼에도 이 지역에 처음 출마한 좌파 정당 대표가 1위와 엇비슷한 2위로 약진한 것은 괜찮은 신호다.

한편 지역 연고 없는 황교안 지지율이 만만찮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상징적인 지역구에서, 그간 우세였던 국힘의 약세를 딛고 극우와 좌파, 중도파가 경쟁하는 구도인 것이다.

## 진보당 김재연 후보

학생운동 리더 출신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했고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연 후보는 이익균점법 발의를 첫 공약으로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의식한 공약이다.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이 43조 원을 넘어섰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현장을 지키는 7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소외가 있다... 대기업의 담장을 넘어... 분배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김 후보는 “성과급은 주인이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나라를 세울 때부터 약속된 노동자의 정당한 몫”이라고 했는데, 이익균점권을 명시한 제헌 헌법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평택시 포승읍의 군사시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약속했다.

포승읍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한 국군 제2함대도 인근으로 옮겨오면서 폭발 위험물들과 군 시설이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고초가 큰 지역이다.

## 극우의 황교안 지원

황교안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장본인이라며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통진당 해산 사건’은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처벌대에 세운 전형적인 마녀사냥이었다. 내란 음모 운했지만, 재판에서 증거 왜곡이 드러났고, ‘사법 농단’의 양승태 법원마저 내란 음모 조직(RO)은 없다고 판결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은 그 탄압의 공로로 박근혜의 국무총리가 됐고, 그 덕분에 박근혜 국회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 먹었는데, 그 시기에 군부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무력 진압하려는 비상계엄 선포가 논의됐다.

이후 황교안은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돼 2019년 전광훈과 공식 연합 집회를 여는 등 극우 정치화

의 선봉에 섰다.

그런 자를 지원하려고 윤어게인 극우 전환길이 나섰다. 전환길은 4월 초 국힘이 일관되게 극우 행보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탈당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산 혁명’을 하겠다며 ‘한미동맹단’이라는 극우 단체를 만들었다.

전환길은 4월 11일 평택 미군기지 앞 K6사거리에서 “마가 위드 대한민국”이라는 집회를 열어 연단에 황교안을 세웠다. 이 집회에서 황교안은 전환길에게 “만세”를 외쳤다.

전환길은 평택시의원에 국힘 후보로 출마한 청년 극우 차강석도 소개했다. 그는 흔치 않은 극우 청년 연예인(뮤지컬 배우)이어서 우파 내에서 인기가 많다.

교통이 불편한 곳인데도 그 집회에는 3,000명가량 모였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으로 곤경에 처하고, 그 여파로 대중의 생활고가 가중돼 한국에서도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며, 국힘의 지방선거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친미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킬 시도를 한 것이다. 반격의 기도다.

## 단일화 제안

현재 평택을 보궐선거에 민주당과 국힘은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지리멸렬하며 지지율 위기인 국힘에는 새 얼굴이 없다. 평택을 국회의원을 하다가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거나 윤석열 시절 밀려나 있던 전직 의원 등이 다시 국회의원을 해 보겠다고 준비 중이다.

여유가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비리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당도 그런 이유로 극우·내란 세력에 맞서는 민주·진보 단일화를 김재연 후보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여권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일 등에 진보당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파의 눈치도 볼 것이다. 미국과 기업주들이 미군기지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자리한 평택에 반미자주 성향 좌파 정치인이 자리잡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진보당의 주장과 거의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 틈새를 노리고 4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 선언을 했다. 조 대표의 출마 선언에는 “민주당” 단어가 3번 나오고 민주당과의 “연대와 단합”을 강조했다. 이미 두

달간 지역구를 일군 진보당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조국 자신은 제국주의에 반대하지도 않고, 노동계급 정치인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진보당과 단일화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장현 진보당 사무총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울산시장을 양보할 테니 평택을 김재연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민주당에게 거레 제안을 한 것은 이런 김새를 눈치채서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제안은 무원칙하다.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인 김상욱은 국힘 의원일 때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지만, 진보적인 정치인은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당과 선뜻 단일화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다수당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첨예한 안보 위기 대응 문제에서 정치적·계급적 차이 때문이다.

평택을에서 민주당·조국당·진보당 사이의 경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 당장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지속하려는 것은 (그 결과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든 무시를 당하는 것이든) 기업주들을 위한 정치 안정 관리에 협조하라는 압력에 점차 순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좌파가 지금의 복합 위기에서 펼쳐야 할 투쟁들에 필요한 좌파성과 급진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함정이다.

## 6.3 지방선거

# 대구에 배수진을 친 극우, 좌절돼야 한다

### 장호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분열과 자중지란으로 패색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조차 패할 가능성이 생겼다.

4월 10~1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추경호가 53퍼센트 대 36퍼센트, 컷오프에 불복하고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진숙, 주호영이 각각 54퍼센트 대 37퍼센트, 53퍼센트 대 35퍼센트로 뒤진다.

### 극우 전사

물론 이진숙 같은 자는 반드시 낙선돼야 한다. 이진숙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여성 종군기자로 유명해졌고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도 현지 취재로 유명해졌지만, 안전한 호텔에 숨어 CNN 보도를 보며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동료 기자들의 입으로 알려지며 금세 빛이 바랬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협조하며 승진 가도를 달렸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기획조정본부장으로서 사장 김재철과 함께 노동자 탄압에 앞장섰다. 그때 직원 컴퓨터에 '트로이콧'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불법 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모욕하는 비난 보도를 내보냈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는 박근혜가 초청해 방한한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며 그를 미화하는 구실을 자처했다. 엘시시는 2011년 이집트의 '아랍의 봄' 혁명을 군사 쿠데타로 분쇄하고 수많은 혁명가들을 고문·살해한 학살자다.

아니나 다를까, 이진숙은 광주 항쟁과 그 유가족을 깎아내리는 SNS 글에 지지 표시를 하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이었는지 묻는 말에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윤석열의 잔당 전위 노릇을 할 때만 해도 지금 같은 거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국면부터 정권 교체 후까지 자신 사퇴를 거부하면서 한순간에 극우의 "여전사"로 떠올랐다. 윤석열의 '내란'이 극우의 주류화로 이어진 과정의 표상이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최근 방미 직전에 이진숙을 만나 대구시장 대신 대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추경호는 쿠데타 당시 국힘 원내대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자가 가야 할 곳은 대구시청이 아니라 감옥이다.



왜 대구 시민들이 극우, 보수, 쿠데타 공범 중에서 선택해야 하나

## 민주당 김부겸이 극우 반대 정치인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을 상대하겠다며 민주당이 후보로 세운 김부겸은 어떤 인물인가? 비록 과거 반유신독재 학생운동가 출신이지만, 그의 첫 국회 입성은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에 이부영·김원웅 등과 함께 합류했지만, 그 이후로도 진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치 활동을 해 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한 김부겸은 박정희의 '공'을 미화하고, 심지어 선거공보물에 당시 대통령 박근혜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비굴한 선거운동을 벌여 빈축을 샀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두 달도 안 지난 때였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시절인 2021년 7월에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취소를 압박하고 서울시와 경찰에 집회금지 통보를 하도록 지시했다. 야구 등 스포츠 행사

나 공연은 허용되던 때였고,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도 없었다.

이번에도 스스로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박정희를 미화하고 박근혜를 만날 계획을 밝혔다. '내란'이나 '쿠데타' 얘기는 입에 담지도 않는다.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은 전 대구시장 권영진(국힘) 아래서 부시장을 했던 채홍호다. 그러니 홍준표도 거리낌없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본지가 보도했듯이, 김부겸은 미국의 극우 마가의 엘리트그룹 '록브리지 네트워크' 한국 지부에 정용진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관련 기사: 김부겸이 반극우 후보라고?)

5년 연속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1위인 대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약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

은 자들을 떨어뜨리고 김부겸이 당선된다고 한들 대구에서 진보파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동혁, 전한길, 전광훈 등이 보여 주듯이 극우는 선거에서 패배할지라도 "좌파와의 체제전쟁"이라는 자신의 의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민주당까지도 친중·친북 좌파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좌파 섬멸론은 잠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파괴 위협을 내재한다.

극우에 맞서 보수 우파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또다시 환멸만 키워 장차 극우가 재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

대구에서도 극우가 공직을 맡아 극우 선동과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김부겸은 국힘 지지자들의 사기 저하(투표 포기)에 의존할 뿐, 진보적 대중과 노동자들의 극우 반대 정서를 대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극우 총리 오르반 몰락에 기뻐하는 헝가리인들

토마시 텡글라-에번스

4월 12일 헝가리 총선에서 극우 총리 오르반 빅토르가 패배를 인정하자 헝가리인 수백만 명이 환호했다. 오르반의 정당 피데스는 다수당에서 제2당으로 밀려났다.

피데스 출신의 머저르 페테르가 이끄는 정당 티서가 해성처럼 등장해서 제1당이 됐다.

오르반의 패배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영국의 나이절 피라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또한 헝가리에 독재 정권이 수립되기를 꿈꾸던 국제 극우도 타격을 받았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와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둘 다 오르반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려 헝가리를 방문했었다.

오르반은 2010년부터 헝가리를 통치했다. 16년 동안 그는 권위주의적 탄압과 이주민들을 겨냥한 악랄한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대인 혐오적 음모론을 지지하고, 성소수자와 여성의 권리를 옥죄는 법을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계급 사람들이 공격받고 모든 층위에서 부패가 횡행하는 가운데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머저르는 이 기간 동안 피데스의 충실한 당원이었지만 최근 더 자유주의적인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바꿨다.

극우가 헝가리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였다. 당시 위기로 부채에 시달리던



트럼프의 핵심 동맹 오르반은 몰락했지만 극우는 새 정부 하에서 기회를 노릴 것이다

중간계급이 파탄 났다.

파시스트 정당인 요비크가 유대인과 로마인[집시]을 탓하며 세력을 키웠다. 요비크는 자유시장 정책에서 별 이득을 보지 못한 사회 집단(농촌 빈민이나 청년 등)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었다.

또한 요비크는 준군사단체인 헝가리수비대를 꾸렸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불법화된 단체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헝가리 사회당(MSZP)의 집권 기간이 온갖 스캔들로 점철된 끝에 2010년에 막을 내리면서 피데스가 선출됐다. 피데스는 “전통적 가족”을 옹호하는 법을 도입하고, 로마인들을 공격하고, 부상하는 요비크를 견제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했다.

2015년 수많은 시리아인들이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일어난 난민 위기 속에서 정치 지형이 더 우

경화했다.

난민 위기에 대응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유럽연합(EU)은 회원국마다 재정착 난민 인원을 할당했다.

피데스는 EU 탈퇴에 늘 반대했다. 헝가리 자본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헝가리 자본주의는 독일의 다국적기업들과 투자에 의존한다.

그러나 피데스는 사람들의 분노를 인종차별적인 방향으로 틀기 위해 EU의 난민 할당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오르반 정부는 남쪽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철책을 쳤고 2016년에 난민 할당을 국민투표에 부쳐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한 종류의 인종차별이 강화되면 다른 종류의 인종차별도 강화되기 마련이다. 피데스는 “기독교 유럽”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기 시작했고, 금융가 조지 소로스에게 관

한 유대인 혐오적 음모론을 퍼뜨렸다.

오르반은 이렇게 말했다. “최대 위협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다. 한 명의 억만장자 투기꾼과 손잡은 유럽 지도자들은 우리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민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피데스는 요비크의 표를 빼앗는 데 성공했고 이후 요비크는 당세가 쇠락했다.

그러나 EU 바깥에서 이주민들이 오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오르반의 정책은 헝가리에서 노동력 부족 사태를 낳았다.

독일 다국적기업들은 노동력 부족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자 오르반은 2018년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이 개혁은 ‘노예 노동법’이라고 널리 불린다.

그러나 이 개혁은 전투적인 시위를 촉발했고 피데스의 투표층 일부에 타격을 줬다. 이후 헝가리는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수를 늘려야 했다.

머저르는 오른쪽에서 오르반을 공격했다. 머저르는 정부가 헝가리인들을 위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인 “손님 노동자”들이 동물원에서 오리와 금붕어를 잡아먹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피라지의 언사를 연상시킨다.

티서는 선거에서 남부 국경 철책을 유지하고 EU의 이주 협약을 거부하겠다고 공약했다.

## 새 정부는 어떤 자들인가?

최고위직으로 거명되는 인물들을 보면 티서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다.

당의 2인자 터르 졸탄은 “좋은 경영인”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우리는 주되게 재계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 우리에게 특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 정부와 얽힌 게 많은 사람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 말은 헝가리 자본주의를 소생하도록 돌볼 기업가들로 새 정부를 채우

겠다는 뜻이다.

4월 현재 EU는 헝가리의 몫으로 돼 있는 지원금 190억 유로를 동결해 두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체계적인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오르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서방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칭찬하는 것에 분노해 왔다.

헝가리 자본주의가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티서의 전략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에 더 밀착하는 것이다.

머저르는 헝가리의 막대한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헝가리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 110억 유로로 치솟아 역대 최고로 높았다. 머저르는 “투자 심리 회복”을 이루고, EU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보조금 받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

티서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국가 부채를 GDP 3퍼센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을 예고한다. 또한 국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르반이 물러나서 기뻐하지만 헝가리의 극우는 잠시 약해졌을 뿐 격퇴된 것은 아니다.

희망은 헝가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번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돼, 공식 정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조직화하는 것에 있다.

출처 Tomáš Tengely-Evans, 'Hungarians cheer far right Viktor Orbán's downfall. What comes next?' (2026. 4. 12) / 번역 김중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임금 파업에 나선 CU 배송 노동자들

화물연대 소속 CU편의점 물품 배송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4월 5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노조를 만든 이후 첫 파업이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전국 25개 BGF로지스 CU물류센터 가운데 5곳(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강원 원주)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각 물류센터의 협력 운송사들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BGF로지스는 CU운영사인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CU편의점 화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각 지역 CU물류센터에서 물량 반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신선 식품과 과자, 라면 등 상온 식품의 매대가 비는 곳들이 생겨났다.

그러자 사용자 측은 파업 효과를 줄이려고 인근 물류센터로 물량을 이관하고 대체 배송을 시도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대체 배송을 막기 위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화성과 안성 물량이 이관된 용인 남사 물류센터로 거점을 옮기고 대체 배송을 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이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용인 남사센터뿐 아니라 충남 아산과 전북 김제 물류센터에서도 대체 배송이 원활하지 않다. 파업이 지속되면 CU편의점 상품 수급 차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CU편의점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전국 4개 화물연대 지역본부 산하 CU지회와 분회는 원청 BGF리테일과 BGF로지스에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원청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는 교섭 책임을 줄곤 회피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신정민 나주CU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BGF로지스는 센터에서 지휘 감독을 다 해 왔어요. 거기에다 돈 한번 준 적 없으면서 노후된 차들 외관 도장까지 하라고 계속 지시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는 오르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배송 노동자들은 고유가의 고통이 더욱 크다. CU 나주 물류센터에서 집회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진제공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나주 CU지회

내몰리고 있습니다.

“BGF는 오직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청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 윤정욱 지회장은 이렇게 사측을 규탄했다.

“CU BGF에 2월부터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답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월 초부터 안성과 화성센터 앞에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대화가 아니라 탄압으로 응대했습니다. 배송 물량을 반으로 줄였고, 계약 해지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조합원 한 명 한 명에게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내용 증명을 날리니까 지 했습니다.”(3월 27일 CU편의점 배송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BGF로지스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2억 원 가까이 손해배상을 들이밀었다. 개인별로 400만 원부터 최고 2,3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다.

이는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GS25와 국내 편의점 업계 선두

를 다두고 있다. 점포수는 전국 1만 8,000여 개로 국내 1위다. 골목마다 편의점 CU가 없는 곳이 없다.

이런 성장은 흑화와 흑서기에도 새벽부터 물품 배송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피와 땀

CU BGF는 겉으로는 ‘좋은 친구’를 내세워 왔다(BGF는 Be Good Friends의 약자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CU편의점 배송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노동자들은 1990년대 웨미리마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고 분노한다.

조합원 47명과 함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신정민 나주CU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 운송료가 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거의 1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 나가고, 저운 배송하는 경우에는 냉장, 냉동기 수리와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 26일 죽어라 일하고 누가 어디 가서 200만 원 받겠습니까? BGF로지스에 운송와

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BGF로지스는 지난해 운송료를 월 2만 원 인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작 2만 원도 정작 노동자들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운송사가 지입료 명목으로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어 왔다. 다단계 하청은 당장 없어져야 하고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CU편의점 화물노동자들은 1주일에 6일간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루 13시간 이상, 주당 70시간에 달한다. 건강이 악화되고 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아프거나 다쳐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다. 대체 차량 비용 부담까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신정민 나주CU 지회장은 분노를 담아 말했다.

“택배나 쿠팡에서 일어난 사고는 많이 알려졌지만, 편의점 화물 노동자들 사고는 이슈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고가 적지 않아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사고로 쉬면, 사측은 용차를 2대 씩입니다. 숙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용차 비용이 한 대당 30만 원이에요. 하루 안 나왔다는 이유로 60만 원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째 파업하고 있는 CU편의점 화물 노동자들의 투지는 여전히 높다.

안 그래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최근 고유가로 생계비 압박을 더욱 받고 있다. CU편의점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료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유통업계도 노란봉투법 ‘영향권’에 들었다며 이번 파업이 미칠 파장을 한껏 경계하고 있다.

이는 CU편의점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의점 화물 노동자들과 원청과, 직접 교섭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선다

## 임금 인상 요구 정당하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3일 평택 공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 삼성전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매일 집회 참가 신청 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4월 13일 현재까지 3만 4,373명이 신청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23일 집회에 4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심 기업에서 거인이 다시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투명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올해 두 회사의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받는 성과급은 세 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삼성전자 노동자도 하이닉스처럼 돼야 한다는 염원이 일었고, 지난 수개월간 노조 가입이 폭증했다. 지난해 9월 6,000명가량이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최근 7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공동투쟁본부가 3월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는 93.1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연봉의 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임원에게는 없는 제한이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회사 수익이 안 좋을 때는 성과급이 크게 삭감되지만 호황일 때는 턱없이 적은 분배만 받아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올해만 성과급을 연봉의 50퍼센트를 넘기는 "특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다.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자사주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회사 측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 노동자들은 턱없이 적은 분배에 "깜깜이 성과급"

이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성과급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거듭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이런 "깜깜이 성과급"을 바꿔, 영업이익의 15퍼센트라는 투명한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여러 부서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회사 측은 단기적 수익을 기준으로 부서간 성과급에서 큰 차별을 두고 있다. 이것도 노동자들의 큰 불만 중 하나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에서 제시한 [성과급] 금액으로 보면 메모리 사업부가 4억, 5억 원이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대 8,000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 사업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보상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과도한 요구?

우파 언론들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의 15퍼센트'면 45조 원가량을 성과급

으로 달라는 것이냐며 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룬 성과다. 그것의 15퍼센트를 노동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온건한 요구이고, 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노동자들 내의 격차를 키운다며 비난하는 위선적인 보도도 있다. 그러나 그런 언론은 더 심대한 격차인 계급 간 격차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그 이득은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는 계급 간 격차를 더욱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싸워 성과를 내면 이는 하나의 기준이 돼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만큼,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다른 부문의 임금 인상 투쟁을 고무하는 중요한 선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장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자들도 5월 1일부터 임금 인상 파업을 예고했다.

우파 언론들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주로 이런 파급 효과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노동자 투쟁을 흠집 내려는 야비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내 메신저에 수십여 명의 비조합원 명단이 유포됐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노조 측이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다며 "범죄이자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다. 설사 누군가가 명단을 관리해 조합 가입을 설득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게 조합 가입을 설득하고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범죄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일 뿐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2024년에 파업을 했을 때도 사측은 우파 언론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권력을 사용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려는 사측에 맞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